

고등학생의 스트레스와 의복의 규범적 동조 및 의복만족도에 관한 연구

이명희·이은실

성신여자대학교 의류학과

A Study on Stress, Normative Conformity toward Clothing, and Clothing Satisfaction of High School Students

Myoung-Hee Lee · Eun-Sil Lee

Dept. of Clothing and Textiles, Sungshin Women's University
(1999. 9. 14 접수)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the influence of stress, body satisfaction, academic record, and demographic variables on the normative conformity toward clothing and clothing satisfaction of high school students. The subjects were 389 high school students(boys: 169, girls: 220) in Seoul, Korea.

The normative conformity toward clothing measured by the degree of wearing of unsuitable clothes for school clothing and private clothing norm of students. The school clothing was influenced by allowance, gender, stress of home life, academic record(-), mother's education($R^2=.270$). The private clothes was influenced by allowance, gender, stress of home life, body satisfaction, and geographical region($R^2=.200$). The clothing satisfaction was influenced by body satisfaction, gender, allowance, geographical region, and stress of home life(-)($R^2=.325$).

The present findings provide that stress of home life, gender, and allowance had effect on the normative conformity toward clothing, and the higher the stress of home life, the lower the degree of clothing satisfaction.

Key words: stress, normative conformity toward clothing, clothing satisfaction, body satisfaction, academic record; 스트레스, 의복의 규범적 동조, 의복만족도, 신체만족도, 학업성적

I. 서 론

현대인은 산업과 의학 등의 발전으로 물질적 풍요와 건강증진의 혜택을 받고 있으나 급변하는 사회현상 속에서 새로운 환경에 대한 적응, 정신적 빈곤과 가치관의 혼란으로 인하여 여러 가지 정신적

고통과 심리적 압력을 경험하게 된다. 이러한 심리적 압력은 스트레스로 개념화되었으며, 최근 스트레스로 고통받는 현대인이 늘어나면서 중요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스트레스란 개인의 능력으로 대처할 수 없는 새로운 환경적 요구에 부딪치게 될 때 느끼는 생리적, 정서적 긴장 반응이라고 말할 수 있다(최순남, 1997).

청소년기는 인생의 여러 단계 중에서 가장 불안정하며 갑작스러운 신체적인 변화에 심리적으로 적응하지 못하고 불안을 많이 겪는 시기이다. 특히 우리나라의 입시위주의 교육제도는 감수성이 예민한 청소년들에게는 중요한 스트레스 원인이 되고 있다. 또한 청소년기에는 이성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의복이나 외모로서 사회적 승인을 받는다고 생각하여 의복에 대한 관심이 크며, 의복이나 화장, 봄치장 등으로 불안감을 보완하려는 경향이 높다(Roach, 1969; Hurlock, 1973). 의복은 자신감과 안정감, 심리적 만족감 및 신체적 만족감을 얻을 수 있는 도구가 되고, 스스로 의복을 잘못 입었다고 생각되면 사회적 활동에서 위축감을 느낀다(Read, 1950; Ryan, 1951). 그러므로 청소년기에는 인정받으려는 심리적 의존성이 강하여 만족스러운 의복착용은 긍정적인 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다.

우리나라는 1983년 중·고등학생의 교복자율화 이후 교복이 폐지된 적이 있으나 그 이후 1986년 9월부터 다시 교복을 착용하는 것이 허용되어 1990년 대에 와서는 대부분의 학교가 교복을 착용하고 있지만 학생의 의복에 대한 규범은 많이 완화되었다. 최근 패션산업의 주요 소비자층인 청소년들의 의복 형태는 사회에서 생각하고 있는 의복규범을 벗어난 여러 형태로 나타나 기성세대와의 갈등을 나타내고 있다. 학교에서나 사회에서는 의복규제와 함께 청소년의 일반 의복규범을 통하여 그들에게 학생다움을 요구하고 있으며 이것은 의복의 규범적 동조로 나타난다. 학생의복의 규범적 동조는 학교나 사회에서 기대하는 학생규범에 일치되게 의복을 착용하는 것을 뜻한다. 현재 우리나라 청소년들은 패션에 대한 관심과 열망을 교복이라는 규제에 묶여 표현을 자제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청소년들은 그들의 패션에 대한 관심과 열망을 학생 의복규범에 동조하지 않는 성인의복을 모방하거나 교복을 변형하여 착용함으로써 의복규범을 위배하는 현상이 많이 나타나고 있는 실정이며, 사회에서는 그러한 청소년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대학입시라는 특수한 상황과 성인기로의 급격한 변화의 문턱에서 비교적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리라고 예상되는 남녀 고등학생

을 대상으로 스트레스에 따라 통학복 및 평상복을 포함한 의복의 규범적 동조 및 의복만족도에 차이가 있는지를 조사하고, 의복의 규범적 동조 및 의복만족도가 스트레스, 신체만족도, 인구통계적 변인에 의하여 어느 정도 영향받는지를 알아보기 하였다. 이러한 연구를 기초로 청소년들의 의복행동을 이해하고 청소년 지도와 의생활연구의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고등학생의 인구통계적 변인(성별, 학생의 계층, 학교성적)에 따른 스트레스의 차이를 파악한다.

둘째, 인구통계적 변인, 신체적 만족도, 스트레스에 따른 의복의 규범적 동조(통학복, 평상복)와 의복만족도의 차이를 파악한다.

셋째, 고등학생의 인구통계적 변인, 신체만족도, 스트레스가 동시에 의복의 규범적 동조와 의복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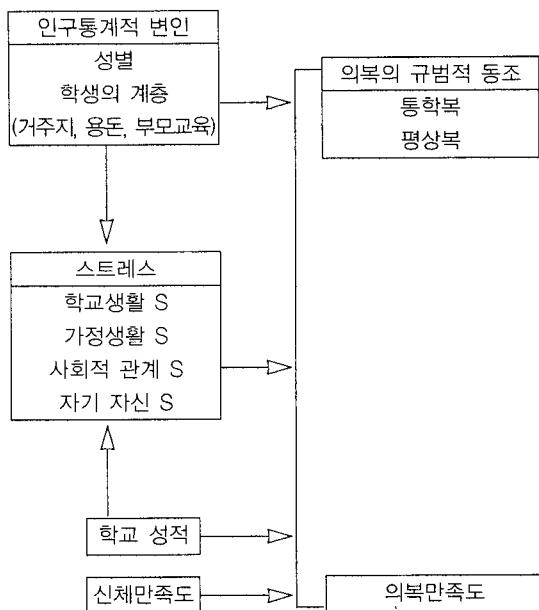
이러한 연구목적에 따른 연구모형은 [그림 1]과 같다.

II. 이론적 배경

1. 스트레스와 의복

스트레스에 대한 개념은 1936년 Hans Selye에 의해 사용되어 보편화된 것으로, Selye는 스트레스를 여러 가지 내부·외부적 자극에 대응하는 개인의 신체적, 정신적 행동반응이라고 하였다. 스트레스는 개인이 직면하는 삶의 과제들 중에서 현재 개인의 능력으로 대처하거나 견디기 곤란한 새로운 사태에 직면할 때 생기는 생리적, 정서적 긴장상태를 뜻하며(신웅섭 외 5인, 1997), 질병, 슬픔, 상실, 위협, 긴장, 기쁨과 연관된다.

스트레스는 개인에 따라 정도의 차이가 있어 개인의 성격, 개인이 그 스트레스를 어떻게 대처하는지, 문제해결 능력이 있는지에 따라 스트레스를 달리 받아들이고 대처한다(최순남, 1997; 서창원, 1995). 스트레스 극복방법으로 방어기제의 사용, 합리적 사고, 명상, 사회적 지지, 자살 등의 형태가 있다(조원호·송숙희, 1998). 이에 대한 방어기제는 스



[그림 1] 연구모형

트레스에 의한 불안과 같은 불쾌한 정서의 강도를 줄여주며, 의복행동으로 표현되기도 한다(Horn & Gurel, 1981; Kaiser, 1985). 김광경, 이숙녀(1989)는 의복의 적절한 사용이 스트레스의 해소방법으로서 유용하다고 하였다.

원호택, 김순화(1985)의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공부에 대한 좌절과 위협이 가장 높은 스트레스 요인이었으나, 이정순(1988)의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스트레스 요인이 자신문제, 환경문제, 교우문제 순으로 나타났다. 여중생을 연구 대상으로 한 여혜숙(1986)의 연구에서는 3학년이 가장 스트레스를 많이 느끼고 있었으며, 스트레스 문제의 심각도는 공부 및 성적, 친구, 외모, 휴식 부족, 학교생활 등의 순이었다. 또한 부모의 학력과 경제 상태가 낮을수록 스트레스 정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 나라 청소년들은 성적, 수업 등의 학교 관련영역에서 스트레스를 가장 많이 느끼고 그 다음으로 자신과 관련된 영역이었으며(윤혜정, 1993), 미국청소년들은 부모 및 가족관계, 일, 경제적 문제 가 중요한 스트레스 원인이었고, 의복을 구입하기 위하여 일하는 것이 하나의 스트레스가 된다고 하

였다(Mates & Allison, 1992).

의복과 스트레스와의 연구에서 스트레스가 낮은 집단이 높은 집단보다 유행의복인 미니스타일을 더 선호하였고(이수지, 1993), 스트레스를 많이 받은 집단이 선명하고 차가운 계통의 색을 더 선호하였다(이영미, 1987). 사회적 불안감이 높은 집단은 의복을 사회적 환경에 적응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하였으며(Lapinsky, 1961), 방어기제로 의복행동을 더 많이 사용하였다(심은선, 1987). 또한 정서적으로 불안한 학생은 의복에 대한 관심이 높았고 의복의 동조성을 중요시하였으며(이은미, 1984), 사회적 불안감이 높을수록 정숙성과 사회적 인정성을 중요시하였고, 불안감이 낮을수록 의복만족도가 높았다(이정현, 1988; 임치경, 1985). 신체와의 관련 연구에서는 비만수준이 높을수록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으며, 체중조절을 시도한 경험이 있을수록, 체중조절신념이 강할수록 스트레스의 증가를 가져왔다(조선진, 1997).

이상에서 볼 때 스트레스나 불안감이 높을수록 의복에 대한 관심이 높아 불안감을 극복하는 데에 의복은 긍정적인 방어기제로서 유용함을 알 수 있다.

2. 청소년기의 의복의 규범적 동조

동조성은 사람들이 자신들의 행동을 기준 규범에 적응시키는 과정으로 개인이 표준을 유지하려고 노력하는 사회적 상호작용의 한 형태이며, 의복에서의 동조성은 의복규범의 수용 또는 고수, 즉 특정 집단의 규범에 따라 의복을 착용하는 것을 의미한다(Horn & Gurel, 1981). 동조성은 집단영향력의 형태에 따라 정보적 집단 영향력, 규범적 집단 영향력으로 구분된다(Kaiser, 1985). 의복행동에 있어서 정보적·사회적 영향에 의한 동조성은 의복을 올바르고 적절하게 입고자 하는 욕구에 의한 것이고, 규범적·사회적 영향에 의한 동조성은 자기자신이 소속한 집단의 의복규범을 따름으로써 집단에서 승인되고 받아들여지려고 하는 욕구로 동조하는 것이다(강혜원, 1995). 또한 의복규범태도는 연령, 신분, 계절, 상황 등의 환경적 요인에 따라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예의성이 있는 외모와 옷차림을 하는 태도를 뜻하기도 한다(황혜영, 1995). 따라서 학생 의복의

규범적 동조는 사회에서 학생의 규범으로 간주되는 바람직한 복장착용에 동조하려는 태도를 뜻한다.

청소년기의 학생 의복규범은 등교시의 복장인 통학복과 평상복의 2가지 차원으로 살펴볼 수 있다. 통학복은 등교시의 교복에 대한 의복규범이고, 평상복은 교복이 아닌 사복차림에 해당하는 것이다.

유덕화(1991)는 여자 중·고등학생의 복장규정을 색상이나 액세서리 등의 주의를 집중시키는 항목, 꼭 끼는 옷이나 신체노출 요인, 신발 항목, 두벌형태 항목, 최신 유행 스타일 등의 항목을 제시하였다. 학생들은 통학복으로 교복을 원하였으며, 교복은 불편하고 개성을 나타낼 수 없고 변화가 없는 반면 단정해 보이고 학생의 특징을 나타낼 수 있으며 학생수준의 차이가 나지 않는다는 면에서 높이 평가되었다(최문길, 1979; 권혜숙, 1983; 유덕화, 1991). 여고생들은 자율욕구가 높을수록 교복자율화에 찬성하며 통학복 규제를 원하지 않았으며(심소연, 1982), 의복의 정숙성을 중요시할수록 복장규정을 잘 지켰다(유덕화, 1991). 남녀 대학생은 동조성과 정숙성이 강한 학생일수록 의복규범에 높은 의식을 가지고 더 순응하였고, 독특성이 강할수록 의복규범을 중요시 여기지 않고 개성적이었다(황혜영, 1995). 규제대상 의복에 대해 학생은 부모 및 교사보다 개방적이었고, 부모는 교사보다 더 개방적이었다(강혜원, 1985). 여학생의 경우에 고등학생이 중학생보다 교복자율화에 더 높은 호응도를 보였고(권혜숙, 1983), 학년이 낮을수록 복장규범에 대한 의식이 낮아지는 경향이 있었다(박미애, 1991). 최근에는 학생들이 교복의 품과 길이를 줄이는 등 교복 변형이 의복규범의 차원에서 문제시되는데 여고생들이 유행에 대한 관심이 높고 의복의 과시성이나 사회적 승인성을 추구할수록 교복을 변형하여 입는 정도가 높았다(고애란·김양진·심정은, 1999). 또한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의복규제를 더 거부하며, 학업성적이 높을수록 의복규제에 더 잘 순응하였다(홍선옥, 1998).

3. 의복만족도

의복만족도는 소유한 의복의 품질과 수량에 관한 만족으로서, 그 구성요소는 색상, 디자인, 유행, 봄에 맞는 정도, 상표, 가격, 실용성, 용도 및 상황에 따른

적합도 등이 포함될 수 있다.

의복만족도는 의복의 특징과 개인의 관심 및 가치관에 의해 달라지며, 저가품 의복보다는 고가품 의복에 대한 만족도가 높다(Ryan, 1966). 청소년들은 자아수용도가 낮을수록 의복에 대한 불만이 높았으며(Littrell, Damhorst, & Littrell, 1990), 자기자신이나 타인을 긍정적으로 지각하는 사람이 자신의 의복에 대해서도 만족하는 편이었다(정미실, 1983). 한편 의복만족도는 신체만족도와 밀접한 관계가 있어 자신의 신체에 만족하는 사람은 의복에도 만족하고(이영윤, 1981; 김미영, 1984), 의복실험에 관심이 높았으며(Littrell, Damhorst, & Littrell, 1990), 꽤 넓은 의복스타일을 수용하는 편이었다(고애란, 1982). 또한 경제적 수준이 높을수록 자신의 외모나 의복에 대한 평가가 높았고(Hambleton, Roach, & Ehle, 1972), 의복만족도가 높았으며(주선희, 1995; 정미실, 1983; 김미영, 1984; 유재미, 1986), 아버지의 직업과 부모의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의복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김미영, 1984; 유재미, 1986).

즉 의복만족도는 신체만족도와 사회경제적 지위와 밀접한 관련을 지니며 정서적으로 과도기에 있는 청소년들은 의복을 통한 만족도가 높았을 때 자신에 대해 긍정적으로 느끼는 것을 알 수 있다.

III. 연구방법

1. 측정도구

본 연구는 조사연구방법으로 질문지법을 사용하였으며, 측정도구로는 스트레스, 의복의 규범적 동조, 의복만족도, 신체만족도, 인구통계적 변인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였다.

스트레스는 윤혜정(1993)이 사용한 4가지 영역의 일상적 스트레스 측정문항 중에서 택하였다. 그 내용은 학교생활, 가정생활, 사회적 관계, 자기자신에 대한 스트레스로 구성되며, 각 변인당 6개 문항을 사용하였다. 5단계의 Likert법으로 측정하였으며 각 변인의 Cronbach의 α 신뢰도계수를 순서대로 보면 .62, .68, .71, .67이었고, 총 스트레스의 신뢰도계수는 .88이었다.

의복의 규범적 동조는 통학복과 평상복으로 나누

어 조사하였으며, 1998년 10월중에 고등학생 30명을 대상으로 예비검사를 실시하여 측정도구를 작성하였다. 통학복을 위하여서는 현재 학교에 등교할 때 학교에서 제한하는 복장규제나 문제시되는 옷차림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를 조사하였다. 평상복을 위하여서는 학교 이외의 장소에 갈 때, 즉 학생들의 일반 외출시 학교에서 제한하는 옷차림에 관한 복장 규제가 있는지, 또는 현재 학생들의 복장 중에서 학생으로서 규범에 위배되는 옷차림에 어떤 것이 있는지를 조사하였다. 통학복 항목에는 교착위반 의복, 교복 고쳐 입기, 교착위반 신발, 교착위반 양말 등이 포함되었고, 평상복 항목에는 노출이 심한 옷, 꼭 끼는 상의, 꼭 끼는 바지, 힙합바지, 찢어진 바지, 짧은 옷, 성인용 복장, 성인용 양말, 성인용 신발 등이 포함되었다. 머리에 무스, 스프레이이나 젤 등 사용, 염색이나 파마 등의 머리변형, 장신구 착용은 학교 및 평상복 항목에 모두 포함되었다. 따라서 통학복은 7개 항목, 평상복은 12개 항목이 사용되었으며 각 문항은 착용 정도에 따라 1~4점을 주어 총합평정법으로 측정하였고, 점수가 높을수록 의복규범에 동조하는 정도가 낮은 것을 뜻한다. 통학복과 평상복의 α 신뢰도는 각각 .78, .82였다.

의복만족도는 소유하고 있는 의복의 종류, 수량, 가격, 품질 등에 대한 만족감의 정도를 조사하는 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선행연구(구자명, 1993)에서 6문항을 택하여 수정 보완하였다. 신체만족도는 본 연구를 위하여 제작한 것으로서 자신의 얼굴, 키, 체형, 신체생김새 등에 관하여 만족하는 정도를 조사하는 5개의 서술문으로 구성하였다. 의복만족도와 신체만족도는 5단계 Likert법으로 측정하였으며, 각각의 α 신뢰도는 .74, .78이었다.

인구통계적 변인으로는 성별, 연령, 학생의 계층, 용돈, 부모의 학력, 거주지, 학교성적에 관한 사항을 조사하였다. 용돈은 교통비, 책값 등을 제외한 월평균 소비성 지출을 조사하였고, 학교성적은 학급내의 등수를 조사하였다. 학생의 계층을 조사하기 위하여 용돈, 아버지 학력, 어머니 학력, 거주지를 통하여 분석하였다. 용돈은 4단계, 거주지는 2단계, 부모학력은 2단계씩 4점으로 정하여 각 문항의 점수를 합하였다. 사회계층의 가능한 점수 범위는 4~10점이

고, 빈도를 고려하여 상, 중, 하류층의 3집단으로 재분류하였다.

2. 표집매상 및 자료수집

본 연구의 조사대상자는 서울의 3개 고등학교의 2학년 남녀 학생 389명이었으며, 조사 시기는 1998년 10월이었다.

수집된 자료의 통계처리는 SPSS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전산처리하였다.

표본의 분포를 보면 성별은 남자가 43.4%, 여자가 56.6%였으며, 연령은 17세가 68.6%였고, 16, 18세가 각각 19.3%, 12.1%였다. 학생의 계층은 상류층 27.0%, 중류층과 하류층이 각각 39.1%, 33.9%였다. 학교성적은 5단계로 분류하였으며, 1~10등이 23.9%, 11~20등이 26.0%, 21~30등이 18.0%, 31~40등이 22.4%, 41등 이상이 9.8%의 분포를 나타내 비교적 고른 분포를 나타내었다. 따라서 학교성적의 등수가 각 등급별로 고른 분포를 나타내어 치우치지 않은 점을 고려할 때 자기보고식의 학교성적 평가가 어느 정도 신뢰성이 있음을 추측할 수 있다.

IV. 결과 및 논의

1. 인구통계적 변인에 따른 스트레스의 차이

인구통계적 변인에 따른 스트레스의 차이를 다변량분산분석(MANOVA)과 Duncan의 다중범위검증으로 조사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 1>과 같다.

다변량분산분석을 실시하기 전에 분산·공분산 메트릭스를 이용하여 종속변수들간의 상관관계를 검토하여야 하므로(채서일, 김범종, 이성근, 1993), 성별, 계층, 학교성적의 각 독립변인 집단에 따른 스트레스 4개 변인의 분산·공분산 메트릭스의 동질성을 각각 검증하였다. Box의 M값을 F값으로 환산한 수치와 p값이 성별은 $F=1.57$; $p=.12$, 계층은 $F=.64$; $p=.89$, 학교 성적은 $F=1.15$; $p=.23$ 이었다. 즉 각 변인별 집단의 분산·공분산 메트릭스가 동질적이었으므로 다변량분산분석을 실시하였다.

<표 1>에서 성별에 따른 다변량분산분석의 결과 학교생활, 가정생활, 사회적 관계, 자기자신에 대한 스트레스의 다변량효과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

〈표 1〉 인구통계적 변인에 따른 스트레스의 차이

인구통계적 변인		스트레스	학교생활 S	가정생활 S	사회적 관계 S	자기자신 S
성별	남(n=169)	2.52	2.51	2.41	2.59	
	여(n=220)	2.43	2.43	2.22	2.66	
	univariate F	1.89	1.10	7.06**	.88	
	Manova test			Wilk's $\lambda=.95$, Approximate F=4.73**		
학생의 계층	하(n=132)	2.53	2.49	2.39	2.75(a)	
	중(n=152)	2.42	2.45	2.30	2.61(ab)	
	상(n=105)	2.47	2.43	2.21	2.49(b)	
	univariate F	1.19	.23	1.80	3.93*	
	Manova test			Wilk's $\lambda=.97$, Approximate F=1.65		
학교 성적	1~10등(n=93)	2.37(b)	2.34	2.27	2.52	
	11~20등(n=101)	2.38(b)	2.40	2.27	2.62	
	21~30등(n=70)	2.50(ab)	2.53	2.26	2.62	
	31~40등(n=87)	2.61(a)	2.55	2.35	2.70	
	41등 이상(n=38)	2.59(ab)	2.60	2.43	2.74	
	univariate F	2.64*	.18	.72	.40	
Manova test				Wilk's $\lambda=.96$, Approximate F=1.08		

*p<.05, **p<.01, 문자 a, b는 Duncan의 다중범위검증(p<.05) S=스트레스

다. 따라서 3가지 종속변인 중 어떠한 변인들이 성별을 변별하는 데 유의한 차이가 있는가를 알아보기 위하여 단변량 F검증을 검토하였다. 그 결과 성별에 따라 학교생활, 가정생활, 자기자신에 대한 스트레스는 유의적인 차이가 없었으나 사회적 관계 스트레스는 성별에 따른 차이가 있었다. 즉 남학생이 더 높게 나타나, 사회적 관계에 있어 남자가 스트레스를 더 많이 받는 편이었다. 이것은 남자가 여자보다 단체생활이나 사회활동 등 사회적 관계에 더 큰 비중을 두지만 그러한 문제를 대처할 능력이 여자보다 성숙되지 못하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로 해석된다.

학생의 계층에 따라 4가지 영역의 스트레스의 다변량효과는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단별량 F검증에서 학생의 계층에 따라 자기자신 스트레스는 유의적인 차이가 있었다. 즉 하류층이 자기자신 스트레스가 가장 높고, 상류층이 가장 낮게 나타나, 계층이 낮을수록 자기자신에 대한 스트레스가 높았다. 이것은 고등학생들이 경제적인 문제로 인해 개인적 능력의 한계를 더 느끼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학교성적에 따른 다변량분산분석의 결과 4가지 스트레스의 다변량효과가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단변량 F검증의 결과를 살펴보면, 학교생활 스트레스는 학교성적에 따라 유의적인 차이가 있었다. 즉 고등학생들은 학교성적이 낮을수록 학교생활 스트레스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결과에서 스트레스를 느끼는 정도는 성별에 따라 다르며, 특히 '여학생은 남학생보다 사회적 관계 스트레스가 높았다. 학생의 계층이나 학교성적은 스트레스에 거의 영향을 주지 않았으나 계층이 낮을수록 자기자신에 대한 스트레스를 더 받으며, 학교성적이 낮을수록 학교생활 스트레스가 더 높았다.

2. 인구통계적 변인, 신체만족도, 스트레스에 따른 의복의 규범적 동조 및 의복만족도의 차이

인구통계적 변인과 신체만족도에 따른 의복의 규범적 동조 및 의복만족도의 차이를 다변량분산분석(MANOVA)으로 조사하기 위하여 성별, 계층, 학교 성적, 신체만족도의 각 집단에 따른 종속변인의 동질성 검사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F값과 p값이 각각

$F=3.12$; $p=.01$, $F=1.89$; $p=.03$, $F=1.72$; $p=.02$, $F=2.39$; $p=.00$ 으로서 분산·공분산 매트릭스가 독립적이었으므로 단변량 F검증의 결과만을 검토하였다.

<표 2>에서 볼 때 성별에 따라 의복만족도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고, 의복의 규범적 동조는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즉 여학생이 통학복과 평상복 모두에서 남학생보다 점수가 높아,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규범적 의복에 더 동조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의복에 대한 관심이 더 높고 의복이 남학생에 비하여 변화시킬 요인이 더 많기 때문이라고 본다. 이러한 결과는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의복규제 거부가 더 높다고 한 선행연구(홍선옥, 1998) 결과를 지지하였다.

학생의 계층에 따라 의복의 규범적 동조 및 의복만족도는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즉 학생의 계층이 높을수록 통학복과 평상복에서 의복규범에 덜 동조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계층이 높을수록 학생이 소비성 지출에 사용할 금전적 여유가 많아 성

인용 복장이나 유행스타일, 다양한 스타일 등을 시도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많기 때문이라고 본다. 의복만족도도 계층이 높을수록 만족하는 정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을수록 의복만족도가 높다고 한 선행연구와 일치하였다(Hambleton, Roach, & Ehle, 1972; 주선희, 1995).

학교성적에 따른 통학복과 평상복의 규범적 동조는 유의적인 차이가 있었고, 의복만족도는 학교성적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학교성적이 가장 낮은 집단이 통학복과 평상복 규범을 동조하지 않는 정도가 가장 높았으며, 성적이 상위권인 집단에서는 의복규범을 위배하는 정도가 낮았다. 특히 통학복은 성적과 비례하는 정도가 강하여 1~10등의 학생은 위반정도가 가장 낮았고, 41등 이상 학생은 위반정도가 가장 높았다. 이것은 성적이 우수한 학생은 학교제도에서 규범을 따르고자 하므로 의복에서도 규범에 동조하는 정도가 높아진 것이라고 보며, 성적이 높을수록 의복규범에 더 순응한다고 한 선행연구(홍선옥, 1998)를 지지하였다.

신체만족도는 6문항을 합하여 그 평균값으로 집단을 분류하였으며, 1.00~2.40 미만을 낮은 집단, 2.40~3.20 미만을 중간집단, 3.20~5.00을 높은 집단으로 하였다. 신체만족도 집단에 따라 의복의 규범적 동조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으나, 의복만족도는 신체만족도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즉 신체만족도가 높은 집단이 의복만족도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신체에 만족하는 사람은 의복에도 만족한다고 한 선행연구(이영윤, 1981; 김미영, 1984; 구자명, 이명희, 1994)와 일치하였으며, 의복만족도가 높은 사람은 외모에 더 관심을 두며 자신의 옷차림에 만족하게 되므로 의복만족도가 높아진 것이라고 해석된다. 따라서 의복만족도가 신체만족도와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스트레스에 따른 의복의 규범적 동조 및 의복만족도의 차이를 다변량분산분석과 Duncan의 다중범위검증으로 조사한 결과는 <표 3>과 같다.

스트레스 집단은 빈도를 고려하여 1.00~2.00 미만을 낮은 집단, 2.00~3.00 미만을 중간집단, 3.00~5.00을 높은 집단으로 분류하였다. 학교생활, 가정생활, 사회적 관계, 자기자신 스트레스, 총 스트레스 집단

<표 2> 인구통계적 변인, 신체적 만족도에 따른 의복의 규범적 동조 및 의복만족도의 차이

독립변인	의복의 규범적 동조		의복만족도
	통학복	평상복	
성별	남(n=169)	1.59	1.88
	여(n=220)	1.90	2.14
	univariate F	27.04**	18.89**
학생의 계층	하(n=132)	1.59(c)	1.91(b)
	중(n=152)	1.78(b)	2.09(a)
	상(n=105)	1.96(a)	2.09(a)
	univariate F	8.04**	2.89*
학교 성적	1~10등(n=93)	1.61(c)	1.98(b)
	11~20(n=101)	1.68(bc)	1.92(b)
	21~30등(n=70)	1.79(bc)	2.00(b)
	31~40등(n=87)	1.89(ab)	2.11(ab)
	41등 이상(n=38)	2.01(a)	2.25(a)
	univariate F	4.51**	2.72*
신체 만족도	낮음(n=100)	1.78	2.02
	중간(n=182)	1.75	1.97
	높음(n=107)	1.76	2.12
	univariate F	.08	2.09
28.23**			

* $p<.05$, ** $p<.01$

문자 a, b, c는 Duncan다중범위검증($p<.05$)

〈표 3〉 스트레스에 따른 의복의 규범적 동조 및 의복만족도의 차이

스트레스	의복변인	의복의 규범적 동조		의복만족도	Manova test
		통학복	평상복		
학교 생활 S	낮음(n=80)	1.75	2.06	3.35(a)	Wilks' $\lambda=.94$, Approximate F=3.84**
	중간(n=216)	1.74	2.01	3.10(b)	
	높음(n=93)	1.84	2.04	2.93(c)	
	univariate F	.90	.22	9.75**	
가정 생활 S	낮음(n=100)	1.58(b)	1.93	3.33(a)	Wilks' $\lambda=.91$, Approximate F=6.53**
	중간(n=184)	1.78(a)	2.04	3.08(b)	
	높음(n=105)	1.90(a)	2.10	2.94(b)	
	univariate F	7.24**	2.21	10.10**	
사회적 관계 S	낮음(n=127)	1.79	2.05	3.38(a)	Wilks' $\lambda=.91$, Approximate F=6.51**
	중간(n=183)	1.74	2.00	3.01(b)	
	높음(n=79)	1.77	2.04	2.90(b)	
	univariate F	.26	.26	19.89**	
자기 자신 S	낮음(n=69)	1.80	2.18	3.50(a)	Wilks' $\lambda=.87$, Approximate F=9.53**
	중간(n=180)	1.73	1.98	3.14(b)	
	높음(n=140)	1.78	2.02	2.88(c)	
	univariate F	.44	2.90	25.47**	
총 스트레스	낮음(n=66)	1.66	2.02	3.51(a)	Wilks' $\lambda=.89$, Approximate F=7.83**
	중간(n=216)	1.78	2.03	3.09(b)	
	높음(n=107)	1.79	2.03	2.89(c)	
	univariate F	1.08	.01	21.28**	

*p<.05, **p<.01, 문자 a, b, c는 Duncan의 다중범위검증(p<.05)

의 분산·공분산 매트릭스의 동질성 검증결과 F값과 p값이 각각 F=.47; p=.93, F=.95; p=.49, F=.65; p=.81, F=.65; p=.80, F=.62; p=.82로서 각 집단의 분산·공분산 매트릭스가 동질적으로 나타났다.

모든 스트레스 변인의 각 집단에 따른 다변량분산분석의 결과 통학복, 평상복, 의복만족도에 대한 다변량효과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3가지 종속변인 중 어떠한 변인이 유의한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단변량 F검증 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학교생활 및 자기자신 스트레스에 따라 의복만족도는 유의한 차이를 보였으나 통학복, 평상복은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의복만족도는 학교생활과 자기자신 스트레스가 높은 집단이 가장 낮았고, 학교생활 및 자기자신 스트레스가 낮은 집단이 가장 높아 스트레스가 낮을수록 의복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가정생활 스트레스 집단에 따라 통학복과 의복만족도는 유의한 차이를 보였으나 평상복은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즉 가정생활 스트레스가 낮은 집단은 통학복 규범에 동조하였고 의복만족도가 높았으나, 가정생활 스트레스가 중간이거나 스트레스가 높은 집단은 통학복 규범에 동조하지 않았고, 의복만족도가 낮은 편이었다. 이것은 부모와의 의견대립이나 부모의 지나친 간섭으로 인해 스트레스를 느끼는 남녀 고등학생들이 교착위반의 복장을 하는 정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사회적 관계 스트레스 집단에 따라 의복만족도는 유의한 차이를 보였으나, 통학복 및 평상복 동조는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의복만족도는 사회적 관계 스트레스가 낮은 집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총 스트레스 집단에 따라 의복만족도는 유의한 차이를 보였으나, 통학복, 평상복은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즉 전체적으로 스트레스가 낮을수록 의복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결과에서 여러 가지 스트레스를 받는 정도가 낮은 고등학생은 자신의 의복에 대해 만족하는 정도가 높은 것을 알 수 있었다. 이것은 불안감이 낮을수록 의복만족도가 높다고 한 이정현(1988)과 임치경(1985)의 연구를 지지하였다.

종합적으로 볼 때 통학복 및 평상복의 규범적 동조는 성별, 학생의 계층, 학교성적에 영향을 받았고, 통학복의 규범적 동조는 가정생활 스트레스에 영향을 받았다. 즉 남자 고등학생보다 여고생이 의복 규범에 동조하는 정도가 낮았으며 학생의 계층이 높을수록 의복의 규범적 동조가 낮았고, 학교성적이 낮을수록 의복 규범에 동조하는 정도가 낮았다. 또한 의복만족도는 학생의 계층, 신체만족도 및 모든 스트레스 변인에 의하여 영향을 받아 학생의 계층이 높고, 신체만족도가 높으면 스트레스를 받는 정도가 낮을수록 의복에 더 만족하였다.

3. 의복의 규범적 동조 및 의복만족도의 다중회귀분석

4개의 스트레스 변인, 신체만족도, 인구통계적 변

인이 의복의 규범적 동조 및 의복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단계적 다중회귀분석으로 조사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 4>와 같다. 인구통계적 변인은 성별, 아버지 학력, 어머니 학력, 거주지, 용돈, 학교성적의 5개였다. 성별과 거주지는 가변수를 사용하여 여학생은 1점, 남학생은 0점으로 하였으며, 강남지역은 1점, 기타지역은 0점을 주었다.

다중회귀분석에 다중공선성(multicollinearity)이 문제되므로, 독립변인이 어느 정도 서로 독립적인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Durbin-Watson 계수를 조사하였다. D-W 계수가 통학복의 경우는 1.81이었고, 평상복의 경우는 1.84였으며, 의복만족도는 1.99였다. 이것은 1~4의 범위에서 2에 매우 가까우므로 만족할만하여(조복희, 1992; 채서일, 김범종, 1988), 다중공선성이 문제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표 4>에서 통학복 규범의 동조에는 용돈, 성별, 가정생활 스트레스, 학교성적(-), 어머니 학력의 순으로 유의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5개 변인을 통한 설명력은 27.0%였다. 남학생보다 여학생이 통학복 규범에 동조하지 않으며, 용돈이 많고, 가정생활 스트레스와 어머니 학력이 높고, 학교성적 이 낮을수록 통학복 규범을 동조하는 정도가 낮았다.

<표 4> 의복의 규범적 동조 및 의복만족도의 다중회귀분석 (N=389)

종속변인	독립변인	R ²	B	beta	t	Overall F
통학복	용돈	.270	.112	.330	7.333***	Constant=.893 F=28.344*** df=5/383
	성별		.333	.271	6.112***	
	가정생활 S		.165	.205	4.611***	
	학교성적		-.040	-.171	-3.747***	
	어머니 학력		.095	.126	2.789***	
평상복	용돈	.200	.113	.342	7.431***	Constant=1.053 F=19.208*** df=5/383
	성별		.312	.262	5.586***	
	가정생활 S		.124	.159	3.439***	
	신체만족도		.098	.121	2.582*	
	거주지		-.129	-.109	-2.377*	
의복 만족도	신체만족도	.325	.313	.363	8.599***	Constant=2.169 F=36.930*** df=5/383
	성별		-.156	-.178	-3.476***	
	용돈		.074	.210	4.934***	
	거주지		.228	.180	4.255***	
	가정생활 S		-.105	-.126	-2.469*	

*p<.05, **p<.01, S=스트레스

평상복 규범의 동조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조사한 결과, 용돈, 성별, 가정생활 스트레스, 신체만족도, 거주지(−)의 순으로 유의적인 영향을 주었으며, 5개 변인을 통한 설명력은 20.0%였다. 즉 여학생이고, 거주지가 강남지역이 아니며, 가정생활 스트레스와 신체만족도가 높을수록 평상복 규범에 동조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학생들의 가정생활은 의복의 규범적 동조에 영향을 주는 중요한 특성임을 알 수 있었다. 즉 청소년들은 용돈이 많고 가정생활 스트레스를 많이 받을수록 학교에서 제시하는 의복규칙을 더 많이 위배하여 평상복에서도 규범을 따르지 않았으며, 학교성적이 낮을수록 통학복에서 교착위반의 복장을 하는 정도가 높았다.

의복만족도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조사한 결과, 신체만족도, 성별(−), 용돈, 거주지, 가정생활 스트레스(−)의 순으로 유의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5개 변인을 통한 설명력은 32.5%였다. 즉 여학생보다 남학생이 의복만족도가 높았으며, 거주지가 강남이며, 신체만족도가 높고, 용돈이 많으며, 가정생활 스트레스가 낮을수록 의복만족도가 높았다.

전체적으로 볼 때 용돈이 통학복 및 평상복의 규범적 동조에 가장 큰 영향을 주었고, 그 다음에 성별 및 가정생활 스트레스가 공통적인 영향을 주었다. 따라서 성별, 용돈, 스트레스는 의복규범 및 의복만족도에 영향을 주는 중요한 변인이며, 청소년의 스트레스는 의복행동과 관련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V. 결 론

본 연구의 목적은 남녀 고등학생의 의복의 규범적 동조, 의복만족도, 스트레스에 대하여 인구통계적 변인에 따른 차이를 파악하고, 의복의 규범적 동조 및 의복만족도가 스트레스, 신체만족도, 인구통계적 변인에 의하여 어느 정도 영향받는가를 조사하는데 있었다.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성별에 따라 스트레스는 유의적인 차이가

있었으며,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사회적 관계 스트레스를 더 많이 받았다. 또한 학생의 계층이 낮을수록 자기자신에 대한 스트레스가 높았으며, 학교성적이 낮을수록 학교생활 스트레스가 높은 편이었다. 성별에 따라 통학복과 평상복의 규범적 동조는 유의한 차이가 있어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의복규범에 동조하지 않았다.

둘째, 학생의 계층에 따라 의복의 규범적 동조와 의복만족도는 유의한 차이가 있어 계층이 높을수록 통학복과 평상복의 규범에 덜 동조하고 의복에 대한 만족도가 높았다.

셋째, 신체만족도에 따라 의복만족도는 유의한 차이가 있어 신체만족도가 높은 집단일수록 의복에 대해 만족하는 정도가 높았다. 의복의 규범적 동조는 신체만족도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넷째, 학교성적에 따라 의복의 규범적 동조에 유의한 차이가 있어 성적이 낮을수록 통학복 및 평상복 규범에 동조하는 정도가 낮았다. 의복만족도는 학교성적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다섯째, 가정생활 스트레스에 따라 통학복의 규범적 동조에 유의한 차이가 있어 가정생활 스트레스가 낮은 집단이 통학복의 규범에 가장 많이 동조하였다. 또한 스트레스에 따라 의복만족도에 유의한 차이가 있어 전체적으로 스트레스가 낮을수록 의복만족도가 높았다.

여섯째, 통학복의 규범적 동조에 용돈, 성별, 가정생활 스트레스, 학교성적(−), 어머니 학력이 유의적인 영향을 주었으며, 5개 변인을 통한 설명력은 27.0%였다. 평상복의 규범적 동조에 용돈, 성별, 가정생활 스트레스, 신체만족도, 거주지(−)가 영향을 주었으며, 5개 변인을 통한 설명력은 20.0%였다. 의복만족도에 신체만족도, 성별(−), 용돈, 거주지, 가정생활 스트레스(−)가 유의적인 영향을 주었으며, 5개 변인을 통한 설명력은 32.5%였다.

종합적으로 볼 때 용돈 및 성별과 스트레스 중에서 가정생활 스트레스가 의복의 규범적 동조에 영향을 주어 용돈이 많으면 가정생활에 스트레스를 느끼는 여학생이 의복의 규범에 덜 동조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신체만족도가 높고, 용돈이 많으며 강남에 거주하고 가정생활 스트레스가 낮을수록

의복에 더 만족하는 편이었다. 따라서 청소년들은 가정생활에서 스트레스를 느낄 때에 규제하는 의복을 더 자주 착용하나, 의복만족도는 오히려 더 낮아진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가정생활 스트레스가 높을수록 청소년들은 특히 통학복에서 규범을 벗어난 특이한 옷 차림을 하려는 경향이 강하였으나 의복만족도는 오히려 낮아짐을 볼 때 가정생활 스트레스가 학생들의 의 생활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이해할 수 있었다. 또한 학생의 계층이 높거나 용돈이 많으면 의복의 규범적 동조를 하지 않으면서 의복만족도가 높아짐을 볼 때 경제적 수준이 청소년의 의생활에 미치는 복합적인 효과를 이해할 수 있었다. 따라서 청소년의 올바른 의생활 지도를 위해서는 교육적 차원에서 적절한 용돈 수준에 대해 신중히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학교 및 사회에서 청소년들을 의복의 규범적 틀에 지나치게 통제하지 않음으로써 개성표현의 욕구를 어느 정도 충족시키며, 만족하는 의생활을 통하여 사회생활적응 및 일상적 과업수행이 올바르게 이루어지도록 유도하여야 할 것이다.

본 연구의 한계점은 스트레스의 측정도구가 표준화된 것이 아니었다는 것과 의복의 규범적 동조, 의복만족도, 신체만족도는 신뢰도를 검토하였으나 타당도를 검토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앞으로의 연구에서는 타당도를 고려한 체계적인 측정도구에 의한 의복연구가 필요시된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특정 학교의 고등학생만을 대상으로 스트레스와 의복태도와의 관계를 조사하였는데, 후속연구에서는 연구 대상의 연령층을 더욱 확대하여 스트레스와 다른 의복행동과의 관계를 조사하는 것이 필요하며, 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가정환경 및 사회적 환경을 꼭 넓게 파악하는 것이 요구된다.

참 고 문 헌

- 강혜원(1985). 남자고등학생의 의복에 대한 태도 연구: 서울시내 남자 고등학생을 중심으로. *한국의류학회지*, 9(1), pp. 29-36.
- (1995). 의상사회심리. 서울: 교문사, 93-94, 104.
- 고애란(1982). 성인 남자의 의복행동과 강화통제 및 신체

적 만족과의 상관연구. *석사학위논문*, 연세대학교 대학원.

고애란·김양진·심정은(1999). 여고생의 교복관련행동과 심리적 특성 및 의복태도의 관련 연구. *연세대학교 생활과학연구소, 생활과학논집*, 13, 31-41.

구자명(1993). 사춘기 남녀 중학생의 외모만족도와 성취 동기 및 사회성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권혜숙(1983). 교복자율화 이후 여자 중고등학생의 의복 행동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김광경·이숙녀(1989). 남성 성역할 스트레스와 의복행동과의 상관 연구. *한국의류학회지*, 13(4), 339-346.

김미영(1984). 여자 중·고등학생의 교복자율화와 외모만족도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상명여자대학교 대학원.

박미애(1991). 여자 중·고등학생들의 복장규범에 대한 의식과 복식행동 및 심리적 변인과의 관계 연구. *석사학위논문*, 인하대학교 교육대학원.

서창원(1995). 현대심리학. 서울: 반도출판사, p. 267.

심소연(1982). 고교생의 의복행동과 과시 및 자율욕구와의 상관 연구. *석사학위논문*, 연세대학교 대학원.

신웅섭 외 5인(1997). 심리학 개론. 서울: 박영사, p. 407.

심은선(1987). 불안과 의복행동에 관한 연구: 방어기제로 사용되는 의복행동을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한양대학교 대학원.

여혜숙(1986). 일부 여자 중학생의 자아개념 및 스트레스와 적응행동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대학원.

원호택·김순화(1985). 대학생의 스트레스 요인에 관한 일 연구. *학생연구*, 서울대학교 학생생활연구소, 20(1), 43-50.

유덕화(1991). 여자 중·고등학생들의 복식행동과 복장규범에 대한 연구: 학교에서의 복장규정을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인하대학교 교육대학원.

유재미(1986). 학교 및 가정환경 변인에 따른 여자 중학생의 의복행동 연구. *석사학위논문*, 성신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윤혜정(1993). 청소년의 일상적 스트레스와 사회관계망지지 지각. *석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대학원.

- 이수지(1993). 성인 여성의 신체만족도 및 스트레스에 따른 미니 스타일 선호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건국대학교 대학원.
- 이영미(1987). 스트레스와 의복디자인 선호도간의 상관 연구: 성인 남녀를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 이영윤(1981). 중년기 여성의 신체적 만족도와 의복행동과의 상관연구. 석사학위논문, 연세대학교 대학원.
- 이은미(1984). 여자중학생의 성격특성 및 또래 집단수용에 따른 의복행동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연세대학교 대학원.
- 이정순(1988). 고등학생의 스트레스 요인과 그에 따른 대응행동에 관한 고찰. 석사학위논문, 영남대학교 교육대학원.
- 이정현(1988). 사회적 불안감과 의복행동과의 관계. 석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 임치경(1985). 노년기 여성의 사회적 불안감과 의복행동과의 관계: 서울시내 노인학교를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 정미실(1983). 남자중·고등학생의 의복행동과 지각형성과의 상관연구. 석사학위논문, 연세대학교 대학원.
- 조복희(1992). 가정학 연구방법론. 서울: 교문사, p. 223.
- 조선진(1997). 일부 여대생의 비만수준 및 체중조절형태가 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 석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 조원호·송숙희(1998). 인간행동의 이해와 청년기 갈등. 서울: 국민대학교 출판부, p. 183.
- 주선희(1995). 청소년 소비자의 의복만족도에 대한 영향 요인 연구: 소비자 능력, 의생활 지식, 정보탐색을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연세대학교 대학원.
- 채서일·김범종(1988). SPSS/PC⁺를 이용한 통계분석. 서울: 법문사, p. 99.
- 채서일·김범종, 이성근 (1993). SPSS/PC⁺를 이용한 통계분석. 서울: 학현사, pp. 99, 215
- 최문길(1979). 중·고교생의 교복자율화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동국대학교 행정대학원.
- 최순남(1997). 인간행동과 사회환경. 오산: 한신대학교 출판부, pp. 383, 385.
- 홍선옥(1998). 청소년의 비행정도와 의복태도 및 의복착용시 영향집단과의 관계. 박사학위논문, 한양대학교 대학원.
- 황혜영(1995). 남녀 대학생의 의복규범에 대한 의식과 복식행동 자아정체감 및 성역할태도간의 상관 연구. 석사학위논문, 인하대학교 교육대학원.
- Hambleton, K. B., Roach, M. E., & Ehle, K.(1972). Teenage appearance: Conformity, Preference and Self-Concepts. *Journal of Home Economics*, 64(2), 29–33.
- Horn, M. J., & Gurel, L. M.(1981). *The Second Skin*. Houghton Mifflin Co., pp. 150–153, 217, 225.
- Hurlock, E. B.(1973). *Adolescent Development*. 4th ed., Tokyo: Tata McGraw-Hill Kogakusha Ltd., p. 168.
- Kaiser, B. S.(1985). *The Social Psychology of Clothing and Personal Adornment*. New York: Macmillan Publishing Co. pp. 145–147, 283.
- Lapisky, M.(1961). *Clothing Values and Their Relation to General Values and to Social Security*.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The Pennsylvania State University.
- Littrell, M. A., Damhorst, M. L., & Littrell, J. M.(1990). Clothing Interest, Body Satisfaction, and Eating Behavior of Adolescent Females: Related or Independent Dimensions?. *Adolescence*, 25, 77–95.
- Mates, D., & Allison, K. R.(1992). Sources of Stress and Coping Responses of High School Students. *Adolescence*, 27, 461–475.
- Read, K.(1950). Clothes Help Build Personality. *Journal of Home Economics*, 42(5), 348–350.
- Roach, M. E.(1969). Adolescent Dress Understanding the Issues. *Journal of Home Economics*, 61(9), 693–697.
- Ryan, M. S.(1951). Effect on College Girl of Feeling Well Dressed. *Journal of Home Economics*, 43(10), 799.
- (1966). *Clothing: A Study in Human Behavior*. New York: Holt, Reinhart and Winston, Inc., pp. 179, 270.